

친환경 질주 현대차그룹... '반도체·노조' 허들에 실적 제동

아이오닉5·EV6 글로벌 인기몰이
1분기 친환경차 판매 10만대 돌파
신차 출고 지연, 단기 해결 어려워
그룹 체질개선 두고 노조갈등 심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EV6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시 전기차마다
흥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장기
화와 전기차 체질개선에 따른 노동조합
의 갈등으로 실적개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의 인기
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10만대를 넘어서는 판매기록을
세웠다.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수출
은 총 11만125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538대 대비 28.6% 증가했다.

현대차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
가한 5만677대를 수출했고, 기아는
39.0% 늘어난 5만5175대를 기록했다.
두 브랜드 모두 5만대 이상의 친환경차
를 수출했다. 1분기 친환경차 수출이
10만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는 유
럽과 북미 시장은 물론 최근에는 인도
와 대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주목받
고 있는 인도에서 아이오닉5의 인기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3월 31일부터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JI엑스포에서

열린 '2022 IIMS 모터쇼'에서 아이오
닉5가 처음 공개된 이후 사전 계약 대
수가 지난달 27일 기준 1587대를 기록
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총 693
대의 전기차가 팔린 것을 고려하면 2배
가 넘는 수치다. 아이오닉5는 아세안
에서 생산하는 첫 전기차로, 지난 3월
준공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아이오닉5의
가격을 공개하고, 정식계약에도 돌입했
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통해 인도네
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일본차 브랜드
의 점유율이 95%에 이르지만 지난해
판매한 전기차 693대 중 87%가 현대
차의 아이오닉과 코나일 정도로 전기
차 점유율은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앞
서있다.

기아 EV6는 대만 시장에서 흥행몰이를
일으키고 있다. 기아가 지난 3월 대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EV6의 온라인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 1차 사전 예약

수량 300대가 매진됐다. 사전 예약자의
과반이 최고 트림인 GT-라인을 선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롱레인지 트림은
30%가량을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의 글
로벌 상승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
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과 노사 갈등 등 각종 악재가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
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돌풍을 이끌었
던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지
금 계약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
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아이오닉 5의 경
우 사전 계약한 소비자들 중 일부는 아
직도 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반
도체 수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서 신차 출고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
대차·기아의 신차를 인도 받기 위해서
는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
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 전무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 차질
로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영향으로 대
기 수요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산업 전
반 수요 자체는 견조할 전망"이라며
"3월 말 기준 국내 미출고 물량은 52만
대로 전분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정상화 속도에
따라 판매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한
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노사 갈등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와
갈등을 악화되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내 노동조합은 올해 공동
의제 '5대 핵심 요구안'을 선정하고 공
동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현대차그룹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험난
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은 올해 공동 투쟁 5대 핵심 요구
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
봉승급분 제외) ▲호봉제도 개선 및 이
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요구
및 정년연장 요구 ▲고용안정 관련 요
구 ▲해고자 원직 복직 및 가압류 철회

요구 등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임단협에서는 신규인원 충
원과 미래차 산업 전환기 고용안정 요
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차량을 생
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감소하고 있
지만 노조는 인력 충원과 국내 신공장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
계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차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수
는 50%, 고용은 30~40%가량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공장 건설이 쉽지 않다
는 점이다.

노조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목
적기반자동차(PBV) 관련 신공장 건설
을 요구하면서도 조합원 고용이 우선되
지 않는 신공장 건설은 단호히 거부한다
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유럽 등
전기차 판매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생산거점에서 전
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순차적
으로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
70 전기차 모델과 신타페 하이브리드
의 생산에 들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오
는 2025년까지 미국에 생산 설비 확충
을 위해 74억 달러(약 9조원)를 투자하
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노조는
사측의 해외 공장 건설을 반대해 왔다.

올해 양사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지부장이 임단협을 이끄는 데다 그룹사
가 공동 투쟁을 예고하면서 향후 사측
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식당 영업 금지... 공공장소 PCR 의무 중국 내 코로나 방역수위 더 높아진다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베이징, 상하이 사태에 방역조치 강화
관리·통제구역 다중이용시설 문 닫아

"48시간 이내 발급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지참하세요."

중국 베이징시의 모든 식당들이 노동
절 연휴 기간 내내 영업을 금지됐다. 핵
산 검사는 차오양구 등과 일부 지역만
의무 명령이 내려졌지만 공원 등 대부
분의 공공장소에 가려면 음성증명서 없
이는 입장할 수 없도록 해놨다. 유니버
설 베이징 리조트는 아예 기약없이 문
을 닫았다. 이미 모든 학교는 휴교나 온
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중국 베이징이 오미크론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와
의 전쟁 승리를 선언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된 전쟁이다.

1일 베이징시에 따르면 전날(4월 30
일) 59명(무증상 6명)의 감염자가 새로
나왔다. 지난달 22일 6명을 시작으로 늘
긴 했지만 28일 49명, 29일은 54명 등 확
산이 본격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감염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신화·뉴스시

지만 베이징시는 모든 식당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초강수라고 할 만큼 방
역 조치를 강화했다. 상하이 사태를 교
훈삼아 가능한 전염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베이징시는 코로나 방역 언론 브리핑
을 통해 노동절 연휴(1~4일) 동안 베이
징의 모든 음식점 내 식사를 금지했다.
식당 손님과 직원들의 감염이 늘면서
다. 다만 배달 서비스는 허용했다.

베이징시는 "식당들은 배달과 테이
크아웃, 패스트푸드, 반제품, 포장식품

등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며 "상황에 따
라 식재료도 판매해 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거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
는 관리·통제구역의 경우 식당 뿐만 아
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영화관과
도서관, PC방 등이 모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검사도 계속된다.

베이징시는 시민 90%를 대상으로 실
시했던 PCR 검사를 감염자가 많이 나
오는 차오양구와 광산구에 한정해 두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휴기
간 내내 공원이나 호텔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
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연휴 이후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때도
음성검사서를 요구해 사실상 PCR 검사
를 의무화했다.

노동절 연휴 이후부터는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 체육 시설
등에 들어가려면 7일 이내에 실시한 PC
R 검사 음성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당국은 감염자 수을 위한 4000병상
규모 임시병원도 건립했다. 상하이시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만명이 감염될 경우
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도시가스 요금 최대 9.4% 오른다

도시가스 민수용(주택, 일반용) 요금이 최대
9.4%까지 대폭 인상된 1일 서울의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일반 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
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시

건설사 70% "안전관리자 수급여건 악화"

>> 1면 '건설현장 안전기준'서 계속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
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수급 확보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03개 중소·중견건설사가
운데 약 70%(중소 71.6%, 중견 76.2%)
이상이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 안전관리
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
한 기업도 39.7%에 달했다. '취업 지원
자 수도 감소했다는 의견'도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
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
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
가 등이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은 최악의 경우 공
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이 크
든, 작든 안전관리자 채용이 필수적이
어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연봉을 더 주는 등 여건이 좋
은 대기업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중
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
다"고 토로했다. /양희문 기자 yhm@